

NOW KOREA IS WORLD



(Time Curve) 전 전경 2023
이름더플레이스_관현의
리슨갤러리가 팝업 전시를
열었다. 왼쪽 벽에는 선
스킬리의 《Gatherer 3》(2020),
오른쪽 바닥에는 로르
푸르보의 《OH It Hits Hurts,
Kjersti》(2022)가 설치됐다.

올가을 한국 미술계는 '전시 풍년'이다. 키아프&프리즈 개최를 맞아 한국은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전 세계 아트피플의 눈을 사로잡는 굵직한 전시도 줄줄이 열렸다. Art는 한국에서 열린 베스트 해외 전시 20개를 엄선했다. 그 경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거장의 귀환. 미술사의 전설이 된 앤디 워홀, 바스키아, 니키 드 생팔, 카렐 아펠, 로렌스 워너의 명작을 실견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칼 안드레, 데이비드 살레, 아니쉬 카푸어, 안젤름 키퍼, 유에민전, 요시토모 나라,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날리니 말라니 등 '빅 네임' 작가도 반갑게 한국을 찾았다. 둘째, 영 파워 아티스트. 최근 국제 미술계에서 떠오르는 작가도 눈에 띈다. 파올로 살바도르, 타바레스 스트라찬, 루수단 히자니쉬빌리, 우베 헤네켄, 피에르 크눔이 그 주인공이다. 셋째, 담론 중심 기획전. 화이트큐브는 '인간론'을 테마로 서울점을 개관하고, 리슨갤러리는 한옥에서 팝업 전시를 개최해 동서양의 만남을 꾀했다. 코리아나미술관은 '걸음의 미학'을 탐구하는 국제 기획전을 선보였다. 일본 영화감독 모리타 요시미츠 회고전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글로벌 아트씬이 이곳에 모였다. 지금, 한국이 세계다! / 편집부



위 · 〈My Reality is Different〉
9채널 비디오 2023_작가가
직접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품을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패드 그림을
그렸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는 서로 중첩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나간다.
아래 · 〈날리니 말라니〉전 전경.

여성이어, 마음껏 슬퍼하라! 〈Nalini Malani: My Reality is Different〉 9. 1~10. 21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인도 출신의 작가 날리니 말라니(1946년생). 작가는 여성이 겪는 불평등, 폭력, 억압을 주제로 회화, 영상, 퍼포먼스를 제작해 왔다. 고대 신화와 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출품작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드로잉 퍼포먼스 〈City of Desires〉(2023). 억박지르는 군인, 눈물 흘리며 끌려가는 소녀를 벽에 묘사하고 그 위에 빨간 족쇄를 그렸다. 여성을 억압하는 인도 사회를 현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습을 대형 벽면에 펼쳤다. 둘째, 영상 〈My Reality is Different〉(2020~23)는 총 34개의 아이패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됐다. 예언자 '카산드라'의 내레이션은 고대 트로이가 몰락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가는 런던 내셔널갤러리의 고전회화 소장품을 선별하고 손 그림을 더해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셋째, 〈Ballad of a Woman〉(2023)은 7개 패널을 이어 붙인 회화설치와 애니메이션이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씬보르스카의 작품 〈발라드〉의 여성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다. 살인자에게 공격받은 여인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죽은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그려, 여성이 짊어지는 과도한 자기 희생을 드러냈다.

